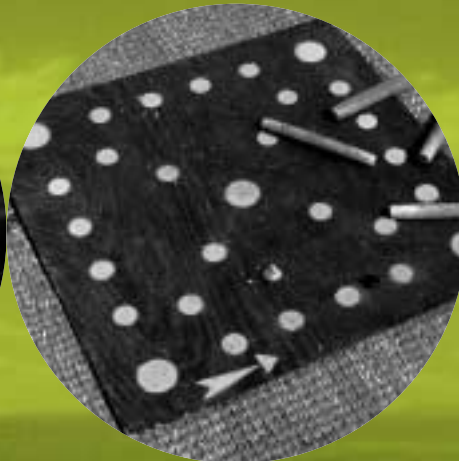


벤처 확산

희 망 찬 새 해 기 운 으 로 을 말 한 다

2006년을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와 함께 벤처의 확산에도 시동이 걸렸다. 모두가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날, 다양한 새해 상징물 속에서 벤처 확산 의지를 발견해 보도록 하자.

HAPPY NEW YEAR AND VENTURE EXPANSION!



복조리 ●●● 쌀을 일듯이복을 모아 간진다는 뜻을 가진 복조리. 새해 이침이면 복조리를 사서 방이나마루, 부엌 벽에 걸어두는 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었다. 혹은 새해 인사와함께 복조리를 선물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을 받길 기원하는 복조리의 숨은 뜻만큼이나 벤처 확산을 외치는 벤처업계에도 풍성한 결실이 넘치길 다 같이 기원해 보자.

웃놀이 ●●● 겨울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않고 즐기던 놀이가바로 웃놀이다. 나무 네쪽을 던져서뒤집어지고 앉어지는 숫자에따라 한 칸에서다섯 칸까지 움직일수 있는 이 놀이는새해 온 가족을 한자리로 불러모으곤 한다. 돼지를 상징하는 '도', 개를 상징하는 '개', 양을 상징하는 '걸', 소를 상징하는 '웃', 말을 상징하는 '모' 등 5개의 경우의수에 따라 흥미진진한 전개가 가능하다. 올해 5대 확산과제를 가지고 숨겨진 발걸음을 내딛게 될 벤처가 성공적으로 웃판을 돌아 나오길 바란다.



나이떡국

●●● 새해가 되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떡국. 하얀 나이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비로소 한 살을 더 먹게 됐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신체나이가 늘었다는 의미뿐 아니라, 한층 성숙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한 해를 살라는 뜻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또 지면 그대로의 색인 흰색이 진실, 엄숙,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묵은 때를 벗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열한 번째 나이 떡국을 맞은 벤처는 올해 열한 배 더 성숙한 모습으로 확산을 향해 새로운 질주를 시작할 때이다.

연

●●● 주로 남자들이들의 겨울철 놀잇감이었던 연은 나쁜 기운을 실어서 날려 보내기 위해 생겨났다고 한다.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가 하늘 높이 연을 올리는 재미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잊게 할 만큼 컸다. 서로 연줄을 부리며 경쟁하던 연사들도 이맘때에만 목격할 수 있는 구경거리다. 비록 연 날리기의 유래가 나쁜 액운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지만, 간절한 새해 소망을 저 멀리 하늘 끝에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 연이 닿는 저 끝까지 벤처의 소망과 기운도 닿길 바라면서 말이다.

널뛰기

●●● 기다란 널빤지의 양 끝에 서서 번갈아 힌찬 도약을 하는 널뛰기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새해 풍경에 속한다. 부녀지의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담장 밖의 세상을 보기 위해 널을 뛰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널뛰기는 마주선 두 사람의 호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널빤지가 평형을 이루도록 조절해야 하고, 서로 뛰는 간격을 맞춰야 하며, 상대방이 전달하는 힘의 반동에 의해서만 도약할 수 있다. 벤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 역시 파트너십이 전제될 때 더 큰 반동을 가져오지 않을까.

팽이

●●● 뱅글뱅글 돌아가는 팽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팽이재의 활약이 필요하다. 형질이나 실로 만든 긴 팽이재를 가지고 팽이를 힘껏 쳐야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오래 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벤처라는 팽이를 쉬지 않고 돌게 하려면 자극제가 필요하다. 산업 간의 협력과 융합, 투자 확대 등 벤처 생태계를 촉진시키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팽이는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돗개

●●● 늠름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대표 토종견 진돗개가 병술년 새해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있을까. 민첩하고 강직한 특성을 가진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남다르다. 대전에서 진도까지 300km나 떨어진 거리를 찾아왔다는 어느 사연처럼 우직하면 서도 의리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진돗개의 고유성이다. 때론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는 순박함, 벤처 하나만 이는 벤처인의 기상은 그래서 진돗개를 닮았다. 벤처의 재도약을 일궈냈듯이 결국엔 벤처 확산을 실현하게 되리라 믿는다.